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나레이티브 표상 발달

The Development of Preschooler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s

민성혜(Sung Hye Min)¹⁾

신혜원(Hye Won Shin)²⁾

이 영(Young Lee)³⁾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age and sex differences in preschooler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their mothers. Subjects were 120 3-, 4-, 5- and 6-year-old children, with 15 boys and 15 girls in each age group. Using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Bretherton et al., 1990), observations were made to obtain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their mothers, content themes and emotional responses. Boys' representations were more negative and less positive than girls' regardless of their age. Boys talked about more aggressive themes and showed more anxiety and less joy. Five and 6-year-old children had less negative and disciplinary representations of their mothers than 3- and 4-year-olds. Six-year-olds showed less prosocial themes than 3- and 5-years, and fewer aggressive themes than 3-and 4-year while they showed less joy, distress and concern responses than 3-years.

Key Words : 표상(representation), MSSB(MacArthur Story Stem Battery), 정서 반응(emotional response).

I. 서론

유아가 출생에서부터 어머니와 공유하는 독특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유대는 유아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 시기에 유아가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구분되어 특별히 두 개인, 어머니-

유아 간에만 형성하는 능동적, 애정적, 상호적인 관계를 애착이라고 한다(이영·조연순, 1991). Bowlby(1969)에 의하면 애착관계는 영아기에서부터 발달하는 행동적-동기적 체계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며, 이 체계는 애착대상에 대해 신체적으로 접근가능성을 느끼고 심리적으로 유용성을

¹⁾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²⁾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연구원

³⁾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ung Hye Min,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E-mailsupsok63@yonsei.ac.kr

가지게 하는 체계이다. 그래서 유아가 편안한 상황에서는 애착대상이 탐색과 놀이, 그리고 다른 사회적 행동들을 지지하는 안전기저로서 역할을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오는 경우 애착대상은 유아를 달래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얼마나 애착대상이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안전기저 역할을 잘 수행하느냐는 영아와 애착대상인 어머니와의 관계의 질을 결정하며 이런 상호작용 유형의 경험에 의해 유아는 애착 대상에 대한 내적 실행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Bretherton & Munholland, 1999). 아동은 영아기를 넘어 유아기가 되면서 좀 더 통제력을 갖게 되고 자율성을 갖게 되므로 이 때 경험하는 여러 가지 신체적, 생태학적, 지각, 표상의 발달적 변화 (Cicchetti, Cummings, Greenberg & Marvin, 1990)의 결과로 '목표 교정적 파트너십(goal-corrected partnership)'의 단계로 발달한다(Bretherton 등, 1999). 즉, 유아는 애착대상인 어머니가 신체적으로 근접한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내적실행모델에 의해 상호 조절된 목표를 공유할 뿐 아니라 내적 상태를 공유하며 어머니와 안정적인 관계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유아기의 내적실행모델은 영아기 때의 내적실행모델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변화를 겪는다. 이런 변화에 대해 Zimmermann(1999)은 유아들의 인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전의식적이고 과정적이며 감각적인 내적실행모델에서부터 맥락 특징적인 사회적 도식으로서의 내적 실행모델로 변화한다고 하였고, Nelson은 애착관계의 질 자체가 연령이 달라지면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 동안 경험하는 광범위한 상호작용의 상황 속에서 관계를 이해함에 변화가 있어 내적실행모델이 변화한다고 하였다(Bretherton, 1999). Thompson(1999)은 연령에 따라 내적 실행모델

이 연속해서 변화한다고 하면서 이 변화는 영아기 때의 양육자와의 관계와 연령이 높아지면서 경험하는 사건표상들, 그리고 발달되는 자기 이해와 관련되면서 특정한 사건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의 발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의 결합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하였다. 긍정적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한 경우 이후의 정서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주어 자기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로 관계를 긍정적으로 여기고 일반적으로 긍정적 대인관계를 가지며 정서조절이 잘 되고(Zimmermann, 1999), 자기 정서를 인식하고 적절히 표현하며(Oppenheim, Nir, Warren., & Emde, 1997b), 다른 관계에 대한 긍정적 기대로 사회적 유능성을 보이는 (Verschuere & Marcoen, 1999; Lyons-Ruth, 1996; Solomon & George, 1999) 반면 부정적 내적실행모델을 형성한 경우는 관계경험에서 무시나 불확실성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 덜 지지적이라고 판단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기대를 가지게 되고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 기대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상황을 만날 때 과잉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분노반응을 보이며(Solomon 등, 1999) 정서조절에 미숙하다(Zimmermann, 1999). 따라서 내적실행모델의 발달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영아기 때 형성된 초기 애착과 이후의 정서사회적 행동간의 지속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 대상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을 측정하기 위하여 직접 관찰뿐 아니라 나레이티브 표상을 이용하는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Main, Kaplan & Cassidy (1985)가 Separation Anxiety Test를 이용해 유아가 부모와의 분리 장면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에 대해 언어적 반응들을 부호화한데 이어 Bretherton, Ridgeway & Cassidy(1990)가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ASCT)를 개발해서 애착에 관련된 연구를 하였고, Oppenheim(1997)은 부모-자녀와의 분리와 재결합을 다룬 이야기 완성과제를 만들어 연구하였다(Bretherton & Oppenheim, 2003). 이런 연구들에 근거해 Bretherton, Oppenheim, Buchsbaum, Emde 그리고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은 애착 표상 뿐 아니라 애착과 관련된 유아의 감정, 행동, 주의, 기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MacArthur Story Stem Battery(MSSB)를 개발하였다. 이 측정방법을 통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유아의 내적 표상이 연령에 따라 변화가 있음에 대해 보고하였다. Oppenheim, Emde, Hasson 그리고 Warren(1997)은 3.5세에서 4.5세 그리고 다시 4.5세에서 5.5세로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아가 점점 여러 사람의 입장을 모두 생각하는 능력이 생겼다고 보고하였고, Oppenheim와 동료들(1997b)은 4.5세와 5.5세의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측정하고 유아의 정서조절 및 문제행동과 연결하여 연구한 결과, 5.5세 유아가 4.5세 유아보다 어머니에 대한 긍정적·훈육적 표상을 많이 하고 부정적 표상은 적게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Oppenheim, Emde 그리고 Warren(1997a)은 4세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과 유아의 적응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4세에 비해 5세 유아가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훈육적 표상을 많이 하고 부정적 표상을 적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Waters, Rodrigues와 Ridgeway(1998)는 3세와 4.5세를 대상으로 이야기 완성과제의 연령차를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 연령이 높아지면서 유아가 보다 긍정적인 표상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유명미와 이영(2001)은 4세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연구한 결과 4세에 비해 5세 유아가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부정적으로 표상을 많이 하고 훈육적 표상을 적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Oppenheim(2003)은 이야기 완성과제를 이용하여 이야기 속에서의 유아의 정서적 해결에 대해 연구하면서 연령이 4.5세에서 5.5세로 가면서 점차 긍정적 정서로 이야기를 맺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보고하였다. 그 밖에도 유아의 표상에서 연령에 따른 변화가 있다는 연구들(신의진·이경숙·이혜란, 1999; 이경숙·정석진·신의진, 2003; Warren, Oppenheim & Emde, 1996; Oppenheim 등, 1997; Warren, Emde & Sroufe., 2000)이 많이 있다.

그러나 Bretherton, Prentiss 그리고 Ridgeway(1990)는 3세와 4.5세를 대상으로 나레이티브 표상을 연구한 결과 유아의 반응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아직까지 유아의 나레이티브 표상연구에서 보이는 연령차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는 일관성이 없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광범위한 연령대를 포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표상 자체의 발달적 경향을 보고자 한 연구보다는 특정 연령 유아의 표상과 다른 발달적 결과, 즉, 문제행동이나 정서조절, 또래관계, 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유아 표상의 발달적 경향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연령이 달라지면서 아동기 동안 경험하는 광범위한 상호작용의 상황 속에서 관계를 이해함에 변화가 있어 내적실행모델이 변화한다면(Bretherton, 1999), 유아의 성에 따른 영향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나레이티브 표상과 관련된 성차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유명미 등(2001)은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를 애정적이고 도움을 주며 용서해주는 상으로

표상하고 있는 반면 남아는 어머니를 양육적이고 신체적으로 벌을 주며 거친 언어를 사용하고 비정형적으로 행동하고 혼육을 많이 하는 상으로 표상하였다고 보고하였다. Oppenheim과 동료들(1997a)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보다 친사회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공격적인 주제를 덜 이야기했다고 하였고, Steele, Steele, Woolgar, Yabsley, Fonagy, Johnson 그리고 Croft (2003)도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 완성과제를 통하여 표상을 연구한 결과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사회적 주제를 많이 이야기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ge와 Bretherton(2001)은 이혼가정의 자녀에 대해 이야기 완성과제를 실시한 결과 여아가 덜 공격적이고 보다 친사회적 주제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Oppenheim과 동료들(1997b)은 4세와 5세를 대상으로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연구한 결과 성차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유아의 표상에 있어서의 성차에 대해서도 아직 일관된 결과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내레이티브 표상속에서 나타나는 내적실행모델을 분석함으로써 초기 애착과 이후의 정서사회적 발달의 매개로 볼 수 있는 유아의 내적실행모델이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유아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표상하는지,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의 주제가 어떠한지,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성할 때 나타나는 유아의 감정반응이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과 가지고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 이야기 주제, 감정반응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연령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 이야기 주제, 감정반응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3세·4세·5세 및 6세 유아로서 연령별로 남·여 각각 15명씩 총 120명이었다. 대상선정은 서울과 경기도의 신도시에 위치한 2개의 유치원을 임의로 선정하여, 유아의 가정에 연구 협조문을 보낸 다음 연구 참여에 동의한 유아와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대상 유아의 연령은 평균 5세 3개월이며 만 3세 유아가 25%, 만 4세 유아가 25%, 만 5세 유아가 25%, 만 6세 유아가 25%였으며, 성별의 구성은 남아가 50%, 여아가 50%로 구성되었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첫째가 48.3%로 가장 많았으며, 둘째가 43.3%, 셋째가 8.4%였다. 또한 본 연구가 이야기 완성 기법을 사용하는 연구이므로 혹시 결과가 유아들의 언어적 능력에 영향 받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K-WPPSI 지능검사 중 언어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언어적 지능이 101에서 120까지인 유아가 47.6%로 가장 많았고 121 이상이 33.3%, 80에서 100까지인 유아가 19.1%로서 K-WPPSI의 지침상 경계선으로 하는 기준인 79점 이하인 경우가 없어 원래의 연구대상을 그대로 연구에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 유아 가족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표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부모

〈표 1〉 연구 대상 유아의 특성

변 인	내 용	빈 도 (%)
연 령	만 3 세	30(25%)
	만 4 세	30(25%)
	만 5 세	30(25%)
	만 6 세	30(25%)
성 별	남	60(50%)
	녀	60(50%)
출생순위	첫 째	58(48.3%)
	둘 째	52(43.3%)
	셋 째	10(8.4%)
언어적 지능	~79	0(0%)
	80 ~100	23(19.1%)
	101 ~120	57(47.6%)
	120 이상	40(33.3%)

〈표 2〉 연구 대상 가족의 특성

변 인	내 용	아버지	어머니
		빈도(%)	빈도(%)
연 령	20대	0	2(1.7%)
	30대	85(70.8%)	111(92.5%)
	40대	35(29.2%)	7(5.8%)
학 력	고 졸	14(11.7%)	21(17.5%)
	전문대졸	9(7.5%)	7(5.8%)
	대 졸	56(46.7%)	73(60.8%)
	대학원 이상	41(34.1%)	19(15.9%)
직 업	사 무 직	75(62.5%)	5(4.2%)
	공 무 원	6(5.0%)	8(6.7%)
	교 육 자	5(4.2%)	13(10.8%)
	전 문 직	15(12.5%)	5(4.2%)
	자 영 업	19(15.8%)	11(9.3%)
	부 직	0	78(65.0%)
자녀 수	한 명	41(34.1%)	
	두 명	69(57.5%)	
	세 명	10(8.4%)	
월 수입	100~200만원	8(6.6%)	
	201~300만원	35(29.2%)	
	301~400만원	36(30.0%)	
	401~500만원	21(17.5%)	
	501~600만원	14(11.7%)	
	601만원 이상	6(5.0%)	

의 연령은 아버지가 30대인 경우가 7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대가 29.2%였으며 어머니도 30대인 경우가 92.5%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5.8%였다. 교육 수준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고졸 이상이였으며, 전문대졸 이상이 아버지 88.3%, 어머니 82.5%였고, 직업별 특성은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이 62.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자영업, 전문직의 순이였고 어머니의 경우는 전업주부인 경우가 6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교육자와 자영업 순이었다. 가정의 자녀수는 두 명인 경우가 57.5%로 가장 많았고 한 명인 경우가 34.1%, 세 명인 경우가 8.4%였다. 가계의 월 평균 수입은 301만원에서 400만원인 경우가 30.0%로 가장 많았으며 201만원에서 300만원인 경우가 29.2%로 그 다음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이야기 완성과제

이야기 완성과제는 Bretherton, Oppenheim, B sbaum, Emde 그리고 the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이 개발한 MacArthur Story Stem Battery(MSSB)를 유영미와 이 영(200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유아에게 정서적으로 부담스런 주제인 부모와 애착관계, 가족 갈등,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14개의 이야기와 도입부로 구성되어 있다. 14개의 이야기 중 연구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야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도구는 연구자가 유아에게 각 주제를 제시한 후 유아가 나레이티브를 완성하는 개방적인 방법(open-ended)으로 실시하고 유아가 완성한 나레이티브의 내용과 유아가 나타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들을 토대로 첫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둘째, 유아의 이야기

주제, 셋째, 유아의 감정 반응을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그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이야기 완성과제를 이용하여 얻어진 유아의 나레이티브를 요인 분석한 Oppenheim과 동료들(1997)의 연구에서 분류된 범주 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어머니에 대한 표상 범주는 긍정적 표상, 부정적 표상, 혼욕적 표상으로 분류한다. 긍정적 표상은 가능하거나 실제의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며 지지적이고 따뜻하고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주는 상으로 묘사되는 것이며 부정적 표상은 전형적으로 아무 때나 심한 매질이나 죽이는 것을 포함한 공격성이 나오고 부모가 아동을 거부하거나 아예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력한 상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혼욕적인 표상은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원칙을 제공하며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조절된 신체적 처벌을 하는 상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둘째, 유아의 나레이티브에 나타난 주제에 대해서는 Robinson, Mantz-Simmons, Macfie 그리고 the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의 체계(Toth, Cicchetti, Macfie & Emde, 1997)를 이용하여 친사회적 내용과 공격적인 주제 범주로 분석하였다. 친사회적 주제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공감/도움, 잘못된 행동을 되돌려놓거나 죄의식을 보이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는 등의 보상/죄의식,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함께 한 활동에 참여하는 제휴, 포옹이나 뽀뽀, 찬사, 인정, 칭찬 등으로 나타나는 애정, 대인간 갈등해결이 포함되었고, 공격적 주제는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인 공격성, 특정인이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상해받는 것으로 묘사되는 개인적 상해, 검사자를 당황케 하는 비정형적, 비조직화된 불안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비정형적 부정적 행동이 포함되

었다.

셋째, 유아가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나타내는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Robinson, Mantz-Simmons, Macfie 그리고 the MacArthur Narrative Working Group의 체계(Toth 등, 1997)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유아의 이야기에서 보이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기쁨(joy), 분노(anger), 디스트레스(distress), 염려(concern), 슬픔(sad), 불안(anxiety)의 정서반응을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야기 완성과제를 통한 어머니에 대한 표상, 이야기 주제 및 감정반응 평정을 위해 이야기 완성과제 개발자의 한 사람인 JoAnn Robinson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았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서 연구 자료의 20%인 24사례에 대해 연구자와 이야기 완성과제 평정체계를 훈련받은 아동학 전공 박사과정생 한 명과 관찰자간 신뢰도를 적률상관계수로 산출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은 $r=.79$, 이야기 주제는 $r=.86$, 감정 반응은 $r=.72$ 였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측정도구의 실시과정 및 평정체계가 유아에게 적합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야기 완성과제의 14개 이야기 도입부를 이용해 놀이 중에 유아 어머니에 대해 표상해낼 수 있는지, 관찰 도구 및 관찰범주의 적절성, 감정 반응 평정, 이야기 주제에 대한 분석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전체 소요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각 연령별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아 3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이야기 완성과제의 14개 이야기를 진행하는 총 소요시간은 45-60

분 정도였으며 특히 3세와 4세 유아는 14개의 이야기를 모두 진행하기 어려웠으며, ‘세 명은 너무 많아(Three’s a Crowd)’,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선물(Gift to mom or dad)’, ‘바위 오르기(Climbing the Rock)’, ‘과자상자(Cookie Jar)’ 이야기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살피기에 충분한 만큼의 반응이 표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위 4개의 이야기를 제외한 10개 에피소드만 사용하기로 하였다.

2) 본조사

본 조사는 2003년 7월 28일부터 2004년 4월 17일까지 이루어졌다. 본 조사는 Y 대학에 있는 실험실과, 유치원에 있는 실험실에서 개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각 아동당 소요시간은 30-45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야기를 제시할 때에는 실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구부릴 수 있는 가족인형과 소품을 사용하였으며 지침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제시하였다. 혹 유아가 에피소드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이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인형을 가지고 놀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하여 지침서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유아들의 이야기 반응에 대해 판단적인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한 에피소드를 유아가 마쳤을 경우 “잘 했구나.”, “좋은 이야기였어.” 등의 언급을 피하고, 이야기의 흐름을 돕고 싶은 경우에는 “어려운 이야기였지?” 등으로 공감을 표현해주거나 눈을 마주쳐 웃어주는 정도로만 하였다. 혹 유아들의 이야기 중 유아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똑같이 반복해 줌으로써 명확히 확인하였다. MSSB의 모든 과정은 비디오 녹화되었으며 녹화된 테이프를 통해 자료분석이 진행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및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둘째, 어머니에 대한 표상, 이야기 주제, 감정 반응이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MSSB를 이용하여 3~6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 주제, 그리고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성할 때 나타나는 유아의 감정반응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3> <표 4> <표 5>와 같다.

<표 3> 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N=120)

연 령	표 상	남아	여아	전체
		M(SD)	M(SD)	M(SD)
3세 (n=30)	긍정적	.61(.38)	.70(.37)	.65(.37)
	부정적	.63(.37)	.39(.36)	.51(.38)
	혼육적	.34(.16)	.51(.22)	.42(.21)
4세 (n=30)	긍정적	.49(.33)	.71(.32)	.60(.34)
	부정적	.63(.35)	.43(.36)	.53(.36)
	혼육적	.37(.24)	.49(.23)	.43(.24)
5세 (n=30)	긍정적	.57(.28)	.99(.35)	.78(.38)
	부정적	.26(.32)	.22(.27)	.24(.29)
	혼육적	.35(.20)	.41(.19)	.38(.19)
6세 (n=30)	긍정적	.55(.64)	.97(.52)	.76(.61)
	부정적	.29(.24)	.23(.17)	.26(.20)
	혼육적	.29(.32)	.17(.19)	.23(.27)
전체 (N=120)	긍정적	.56(.42)	.84(.41)	.70(.44)
	부정적	.45(.36)	.32(.31)	.38(.34)
	혼육적	.34(.24)	.40(.24)	.37(.24)

〈표 4〉 성과 연령에 따른 유아의 이야기 주제

(N=120)

연 령	이야기주제	남 아	여 아	전 체	
		M(SD)	M(SD)	M(SD)	
3세 (n=30)	친사회적 주제	공감/도움	.54(.25)	.49(.21)	.52(.22)
		대인간 문제해결	.41(.27)	.49(.26)	.45(.27)
		재휴	.17(.16)	.25(.14)	.21(.15)
		애정	.13(.15)	.22(.13)	.18(.14)
		보상/죄의식	.10(.19)	.03(.06)	.07(.14)
	전체	1.29(.80)	1.40(.58)	1.35(.69)	
	공격적 주제	공격성	.23(.25)	.67(1.74)	.45(1.24)
		개인적 상해	.26(.30)	.12(.15)	.19(.25)
		비정형적 부정반응	.46(.36)	.27(.28)	.36(.33)
		전체	.96(.79)	.65(.55)	.80(.69)
4세 (n=30)		친사회적 주제	공감/도움	.35(.17)	.53(.25)
	대인간 문제해결		.40(.29)	.43(.23)	.42(.26)
	재휴		.16(.14)	.15(.16)	.16(.14)
	애정		.11(.13)	.24(.19)	.17(.18)
	보상/죄의식		.03(.06)	.02(.06)	.02(.06)
	전체	1.02(.54)	1.37(.53)	1.20(.55)	
	공격적 주제	공격성	.30(.30)	.27(.22)	.28(.26)
		개인적 상해	.21(.29)	.20(.14)	.21(.23)
		비정형적 부정반응	.45(.35)	.19(.26)	.32(.33)
		전체	.98(.77)	.65(.48)	.81(.65)
5세 (n=30)		친사회적 주제	공감/도움	.28(.16)	.55(.16)
	대인간 문제해결		.11(.06)	.13(.11)	.12(.09)
	재휴		.08(.09)	.16(.15)	.12(.13)
	애정		.21(.19)	.43(.25)	.32(.25)
	보상/죄의식		.06(.06)	.07(.07)	.07(.07)
	전체	.83(.47)	1.51(.38)	1.17(.54)	
	공격적 주제	공격성	.17(.26)	.07(.11)	.12(.20)
		개인적 상해	.10(.14)	.05(.05)	.07(.11)
		비정형적 부정반응	.25(.26)	.08(.16)	.17(.23)
		전체	.52(.61)	.20(.27)	.36(.49)
6세 (n=30)		친사회적 주제	공감/도움	.21(.21)	.55(.16)
	대인간 문제해결		.06(.09)	.05(.05)	.06(.08)
	재휴		.10(.11)	.06(.07)	.08(.09)
	애정		.66(1.74)	.45(.24)	.56(1.22)
	보상/죄의식		.03(.06)	.07(.07)	.05(.07)
	전체	.67(.49)	1.01(.34)	.84(.45)	
	공격적 주제	공격성	.09(.18)	.05(.07)	.07(.13)
		개인적 상해	.07(.09)	.02(.04)	.05(.07)
		비정형적 부정반응	.27(.24)	.21(.16)	.24(.20)
		전체	.39(.28)	.29(.23)	.34(.26)

<표 4> 계속

연령	이야기주제	남아	여아	전체	
		M(SD)	M(SD)	M(SD)	
전체 (N=120)	친사회적 주제	공감/도움	.35(.23)	.49(.20)	.42(.23)
		대인간 문제해결	.25(.26)	.28(.26)	.26(.26)
		제휴	.13(.13)	.16(.15)	.14(.14)
		애정	.28(.88)	.34(.23)	.31(.64)
		보상/죄의식	.06(.11)	.05(.07)	.05(.09)
	공격적 주제	전체	.96(.62)	1.32(.49)	1.14(.59)
		공격성	.20(.26)	.26(.89)	.23(.65)
		개인적 상해	.16(.23)	.09(.13)	.13(.19)
		비정형적 부정반응	.36(.31)	.19(.23)	.27(.29)
		전체	.71(.68)	.45(.45)	.58(.59)

<표 5> 성과 연령에 따른 감정반응 (N=120)

연령	감정반응	남아	여아	전체
		M(SD)	M(SD)	M(SD)
3세 (n=30)	기쁨	.48(.60)	.76(.51)	.62(.57)
	분노	.31(.57)	.17(.23)	.24(.43)
	디스트레스	.65(.49)	.55(.43)	.60(.45)
	염려	1.05(.35)	.93(.38)	.99(.37)
	슬픔	.04(.08)	.07(.12)	.06(.10)
	불안	.80(.30)	.65(.26)	.72(.29)
4세 (n=30)	기쁨	.41(.40)	.89(.57)	.65(.54)
	분노	.21(.32)	.18(.31)	.19(.31)
	디스트레스	.62(.43)	.41(.38)	.51(.41)
	염려	.97(.47)	.83(.33)	.90(.40)
	슬픔	.09(.26)	.02(.04)	.05(.19)
	불안	.75(.30)	.51(.34)	.63(.34)
5세 (n=30)	기쁨	.33(.37)	.48(.53)	.41(.46)
	분노	.09(.23)	.03(.08)	.06(.17)
	디스트레스	.29(.26)	.21(.24)	.25(.25)
	염려	.69(.15)	.79(.23)	.74(.19)
	슬픔	.01(.03)	.07(.14)	.04(.10)
	불안	.73(.30)	.59(.27)	.66(.29)
6세 (n=30)	기쁨	.09(.17)	.33(.32)	.21(.28)
	분노	.13(.28)	.03(.13)	.08(.22)
	디스트레스	.04(.08)	.13(.14)	.09(.12)
	염려	.35(.27)	.37(.25)	.36(.26)
	슬픔	.00(.00)	.05(.16)	.02(.11)
	불안	.60(.28)	.47(.38)	.54(.34)
전체 (N=120)	기쁨	.33(.43)	.62(.53)	.47(.50)
	분노	.18(.37)	.10(.21)	.14(.22)
	디스트레스	.40(.43)	.33(.35)	.36(.39)
	염려	.77(.42)	.73(.37)	.75(.40)
	슬픔	.03(.14)	.05(.12)	.04(.13)
	불안	.72(.30)	.56(.32)	.64(.32)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라 어머니에 대한 표상,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 주제,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성할 때 나타나는 유아의 감정반응이 어떠한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다음 <표 6>, <표 7>, <표 8>과 같다.

<표 6> 성과 연령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표상 이원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긍정적 표상	성	24.65	1	24.65	1.44***
	연령	6.65	3	2.21	0.12
	성×연령	5.48	3	1.82	0.10
부정적 표상	성	5.46	1	5.46	0.56*
	연령	21.70	3	7.23	0.74***
	성×연령	2.24	3	0.74	0.08
훈육적 표상	성	0.96	1	0.01	0.19
	연령	7.55	3	0.03	0.50**
	성×연령	3.62	3	0.01	0.24

<표 7> 성과 연령에 따른 이야기 주제 이원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친사회적 주제	성	40.70	1	40.70	1.44***
	연령	41.16	3	13.72	0.49**
	성×연령	12.18	3	4.06	0.14
공격적 주제	성	21.60	1	21.60	0.74**
	연령	63.09	3	21.03	0.72***
	성×연령	2.63	3	0.88	0.03

<표 8> 성과 연령에 따른 감정반응 이원변량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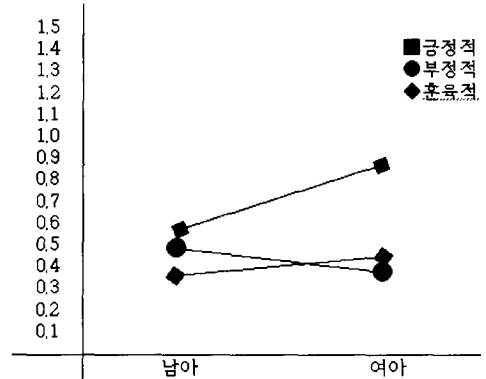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기쁨	성	24.65	1	24.65	1.19***
	연령	37.95	3	12.65	0.61***
	성×연령	4.21	3	1.40	0.07
분노	성	2.00	1	2.00	0.22
	연령	7.01	3	2.34	0.26
	성×연령	0.59	3	0.19	0.02
디스트레스	성	1.69	1	1.69	0.15
	연령	50.37	3	16.79	1.49***
	성×연령	3.26	3	1.09	0.01
염려	성	0.40	1	0.40	0.04
	연령	69.49	3	23.16	2.29***
	성×연령	2.91	3	0.97	0.09
슬픔	성	0.10	1	0.10	0.06
	연령	0.22	3	0.01	0.04
	성×연령	0.75	3	0.25	0.15
불안	성	8.17	1	8.17	0.86**
	연령	5.38	3	1.79	0.19
	성×연령	0.59	3	0.19	0.02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문제별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성에 따른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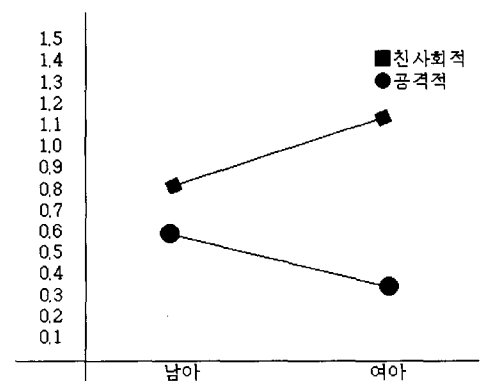
첫째, 어머니에 대한 표상에서는 <표 7>과 같이, 성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으며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연령에서 남아는 여아보다 어머니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F=.56, p<.05$)은 더 많이 하고 긍정적 표상($F=1.44, p<.001$)은 더 적게 하였다.

둘째,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의 주제는 <표 8>과 같이 친사회적 주제($F=1.44, p<.001$)와 공격적 주제($F=.74, p<.01$)에서 성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고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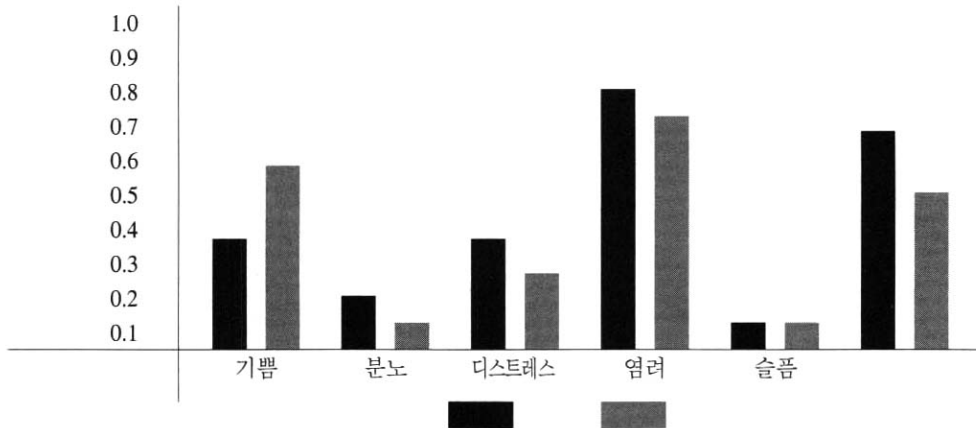


<그림 1> 성에 따른 이야기 완성과제에서의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즉,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연령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친사회적 주제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였고, 공격적 주제의 이야기는 더 적게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아는 남아에 비해 친사회적 주제 중 공감/도움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여($F=1.54, p<.001$)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이야기를 전개하였으며, 남이는 여아에 비해 공격적 주제 중 비정형적인 부정적 이야기를 더 많이 하여($F=1.22, p<.001$) 비정형화된 비조직적인 부정적 반응을 많이 하였고 개인적 상해에 대한 이야기($F=.40, p<.05$)를 많이 하였다.



<그림 2> 성에 따른 이야기 완성과제에서의 이야기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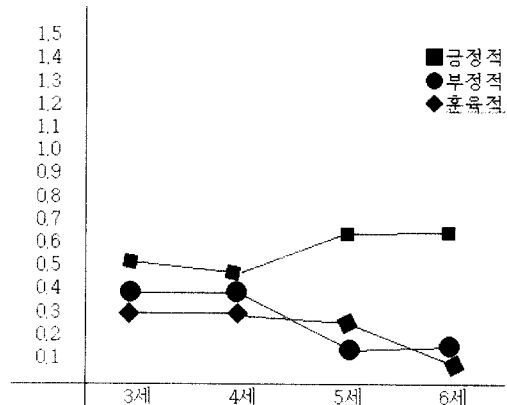


<그림 3> 성에 따른 이야기 완성과제에서의 감정반응

셋째,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성할 때 나타나는 유아의 감정반응은 <표 8>과 같이, 기쁨($F=1.19, p<.001$)과 불안($F=.86, p<.01$)에서 성에 따른 주효과가 있었고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즉,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연령에서 여아는 남아에 비해 기쁨을 더 많이 나타내었고, 남아는 여아에 비해 불안을 더 많이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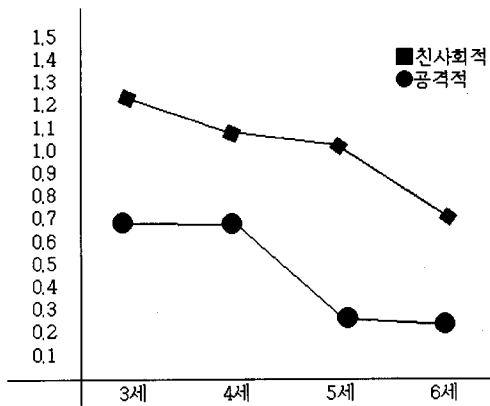
2. 연령에 따른 차이

첫째, 연령에 따라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이 어떠한가를 살펴본 결과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정적 표상($F=.74, p<.001$)과 혼육적 표상($F=.50, p<.01$)에서 연령에 따라 주효과가 있었고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 여아 모두 3세, 4세, 5세, 6세 유아 중에서 3세와 4세에 비해, 5세와 6세의 유아가 어머니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경우가 적었으며($F=.74, p<.001, Scheffe : 3=4>5=6$), 6세는 3세, 4세, 5세에 비해 어머니에 대해 혼육적으로 표상하는 경우가 적었다($F=.50, p<.01, Scheffe : 3=4>6$).



<그림 4> 연령에 따른 이야기 완성과제에서의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둘째,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의 주제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친사회적 주제($F=.49, p<.01$)과 공격적 주제($F=.72, p<.001$)에서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모두 나타났고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즉, <그림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아 여아 모두 유아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야기의 주제가 줄어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친사회적 주제 중 공감/도움,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내용($F=.66, p<.001$)과 제휴 즉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는 내용을 3세가 6세보다 더 많이 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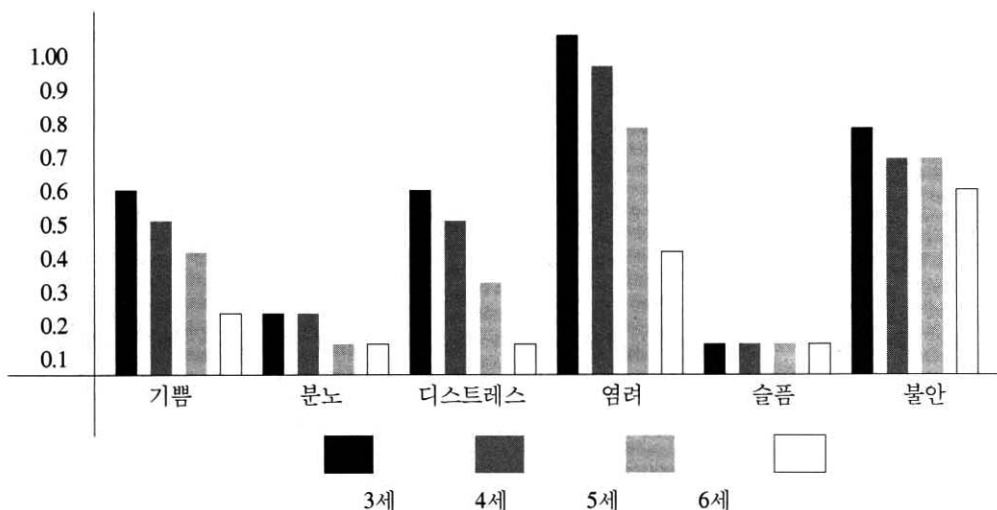


〈그림 5〉 연령에 따른 이야기 완성과제에서의 이야기 주제

고($F=.52, p<.01$), 대인간 문제해결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삼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갈등해소를 위해 협상하는 내용도 3세와 4세가 5세와 6세보다 많이 하였다($F=3.13, p<.001$). 반면에 공격적 주제 중에서 개인적 상해 즉 신체적 고통을 이야기 하는 내용을 3세와 4세가 5세와 6세보다 더 많이 하였다($F=.62, p<.01$). 이를 친 사회적 주제와 공격적 주제로 묶어보았을 때,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친 사회적 주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어지고(Scheffe : $3>6$), 공격적 주제는 특히 5세가 되면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Scheffe : $3=4>5=6$).

셋째,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성할 때 나타나는 유아의 감정반응은 <표 8〉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쁨($F=.61, p<.001$)' '디스트레스($F=1.49, p<.001$)' '염려($F=2.29, p<.001$)'에서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고 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즉, 〈그림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쁨' 감정반응은 5세와 6세가 3세와 4세에 비해 더 적게 나타났고, '디스트레스'는 5세와 6세가 3세와 4세에 비해 더 적게 나타났으며, '염려'는 6세가 3세에 비해 더 적게 나타냈다. '분노'도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경향이 있었다. 즉 유아가 4세가 지나 5세 또는 6세가 되면 대부분의 감정반응이 적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슬픔' 반응은 전 연령에 걸쳐 매우 적었고, '불안'은 전 연령에 걸쳐 높은 편이었다.



〈그림 6〉 연령에 따른 이야기 완성과제(MSSB)에서의 감정반응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3세~6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나레이티브 표상 속에서 나타나는 내적실행모델을 분석함으로써 초기 애착과 이후의 정서사회적 발달의 매개로 볼 수 있는 유아의 내적실행모델이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유아가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표상하는지,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의 주제가 어떠한지,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성할 때 나타나는 유아의 감정반응이 성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성에 따라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를 어떻게 표상하는지,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 주제가 어떠한지,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성할 때 나타나는 유아의 감정반응이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 3·4·5·6세 모두 남자는 여아보다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으로 표상하는 경우는 더 적었고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경우는 더 많았다. 이는 4세와 5세의 경우 성에 따라 유아의 표상에서 남아가 긍정적인 표상을 더 적게 하고 부정적인 표상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유영미·이영, 2001; Oppenheim 등, 1997a)과 일치한다. 이야기 주제의 경우 남아가 여아보다 친 사회적 주제의 이야기는 더 적게 한 반면, 공격적 주제의 이야기는 더 많이 하였는데 이는 여러 선행연구(Oppenheim 등, 1997a; Steele 등, 2003)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또한 이야기 완성과제시 나타내는 감정반응에서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기쁨은 덜 표현했던 반면 불안은 더 많이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선행 연구들에서 다

루어지지 않았던 3세를 포함시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3세에서부터 유아의 성에 따라 어머니에 대해 표상하는 바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실제로 어머니들이 유아의 자녀의 성에 따라 다르게 양육하고 있음을 반영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즉 부모들은 남아에게는 여아에 비해 보다 독립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보다 분명한 규칙을 전달하며 벌을 더 많이 주고 '남아같이' 행동하는 것에 칭찬하고 '여아같이' 행동하는 것에 제재를 한다(이영 외, 1997). 이에 비해 여아에게는 남아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지도할 뿐 아니라 부정적 통제도 덜 보이고(권연희, 2003),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배려에 대해 관심을 가지도록 양육한다. 이로 인해 여아는 보다 관대함, 도움, 사려깊음 등을 가지게 되는 반면 남자는 보다 신체적인 처벌이나 언어적 처벌로서 훈육받고 그러면서 남자다운 행동을 칭찬받고 공격성은 다소 허용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남자는 어머니를 보다 부정적이고 훈육적인 상으로 표상하며 어머니를 도움을 주고 애정주는 상으로 표상하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남자는 정서적인 표현을 가능한 억제하도록 양육되어지는 것으로 보고(김문정, 2003)되고 있는데 비해 여아는 정서를 개방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남아보다 기쁨을 더 많이 표현하고, 남자는 여아보다 불안을 더 많이 표현한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Page와 Bretherton(1994)는 여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표상이 일반적으로 남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보다 안정적이라고 하였다. 부모들은 남아보다 여아와 보다 면대면 언어적 상호작용을 많이 하며 이 상호작용은 어머니들이 보다

여아와 강한 정서적 교류를 함을 나타낸다. 유아 발달해도 이 유형은 지속되어서 부모와 여아는 정서에 대한 언어적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유아기의 여아들은 이미 남아보다 정서에 대해 보다 많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Verschueren, Marcoen., & Schoefs, 1996). 정서에 대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애착에 대한 안정 실행모델을 발달시키는 주요 상황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여아들이 보다 안정된 애착표상을 갖게 된다.

그러나 남아와 여아의 애착에 대한 내적실행 모델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내적실행모델이 달라서가 아니라 표현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유아기 여아가 정서를 표현하는데 덜 어려움을 느끼고 보다 잘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경우 성차가 실제로 있다고 보기보다는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게 하는 표상의 측정 방법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남녀 유아가 어머니에 대해 가지는 표상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표상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여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서 보다 안정된 실행모델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아버지와도 안정된 실행모델을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연구가 필요하며 유아기는 성유형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이야기 완성과제에서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 주제 및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성할 때 나타나는 유아의 감정 반응은 3, 4세의 경우와 5, 6세의 사이에 큰 변화를 보였다. 어머니에 대한 표상에서 5세와 6

세는 3세와 4세에 비해 부정적, 혼욕적으로 표상하는 경우가 더 적었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 표상도 3,4세의 유아보다 5, 6세가 더 많이 하였다.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 주제에서는 전반적으로 3세에서 4세, 5세, 6세로 가면서 점점 친사회적 주제의 이야기도 적게 나타나고 공격적인 주제도 적게 나타났다. 특히 공격적 주제의 이야기는 5세가 되면서 현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에 따른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차이를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5세가 4세보다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 혼욕적으로 많이 표상하고 부정적으로 표상하는 경우가 적다(유영미 외, 2001; Oppenheim 등, 1997)는 보고도 있고, 4세와 5세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에서 차이가 없다(Warren 등, 1996; Oppenheim 등, 1997b)는 보고도 있다. 이 결과는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나레이티브 표상에서 4세와 5세에 중요한 발달적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5세가 보다 덜 부정적으로 표상하고 보다 긍정적, 보다 혼욕적으로 표상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이야기에서 이런 발달적 변화는 아마도 4세와 5세 사이의 양육에서의 정상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것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양육연구에서 유아기동안의 양육에서의 발달적 변화는 연구되지 않았다. 따라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이 변화는 연령에 따라 신장되는 사회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보다 나이 든 아동이 어머니를 사회적 규범과 보다 일치하게 표현하여 어머니를 보다 더 긍정적이고 적절하게 혼욕하고 덜 부정적인 상으로 표상할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이 변화는 사회 인지적 발달로 설명될 수 있다. Bretherton, Prentiss 그리고 Ridgeway (1990)는 5세 유아의 나레이티브 표상이 보다 세

밀하고 차별화되게 가족성원을 그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발달적 경향은 긍정적 훈육적 표상이 늘어남을 설명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정적 표상의 감소는 설명해줄 수 못한다. 이것은 유아기 동안의 중요한 발달적 변화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Oppenheim(2003)은 정서조절 능력과 연결하여 이를 설명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유아가 4.5세에서 5.5세로 가면서 정서적 조절능력이 신장되고 문제해결 능력이 발달하며 또한 보다 구조적인 교육환경에서의 경험이 늘면서 문제 상황에서 타협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증가되고, 그러면서도 정서적으로 도전받는 이슈를 회피하거나 일상적인 응답으로 자신을 감출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유아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이상화시켜 부정적인 표상은 적게 하고 공격적인 주제도 줄어들고 솔직한 감정반응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성할 때 나타나는 유아의 감정반응도 연령이 증가하면서 반응이 적게 나타났으며 특히 5세가 되면서 현격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서를 적절히 조절하거나 표현하는 전략이 제한적으로 되어있던 영아기에 비해 유아기가 되면서 적절히 정서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전략을 습득하게 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사회에서 수용가능한 방식으로 정서를 표현하고, 부적절하다고 알려진 정서는 조절해 나가기 때문이다 (Berk, 2003). Zahn-Waxler, Schmitz, Fullker, Robinson., & Emde(1996)는 3세와 4세 이후에 부정적인 정서가 덜 나타나고 자기 통제 능력이 강해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LaFrenier (2000)는 유아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어 감정의 표현도

사회적인 상황이나 요구에 적응하는 방법으로 변화되므로 분노, 당황, 저항등의 화내는 행동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감정반응의 빈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특히 부정적인 정서가 상대적으로 더욱 줄어들 수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특히 5세를 기점으로 하여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 점은 정서조절능력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적 관계의 변화 등으로 미루어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유아가 또래 관계 속에서 지배성의 위계(dominance hierachies)가 발달하게 되면서 몇몇 아동들은 다른 친구에 대해 지배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집단에서의 리더로서, 놀이감과 놀이공간에 대해 우선권을 갖는 존재로서 인식되며 이것이 모든 아동들에게 인식되어짐(이영외, 1997)으로써 공격성은 점차 줄어들게 된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아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을 많이 하고, 친사회적 주제의 이야기를 많이 하며, 기쁨의 감정반응을 많이 보였다. 또한 5세를 전후하여 어머니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표상은 더 적게 하고 훈육적인 표상은 더 많이 하게 되고 5세를 전후하여 공격적 주제뿐 아니라 친사회적 주제를 더 적게 이야기하고 부정적 감정뿐 아니라 긍정적 감정반응도 억제하였다. 본 연구는 비록 종단적으로 설계된 연구는 아니지만 국내에서는 드물게 3세부터 6세 유아의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나타난 어머니에 대한 표상의 특징 및 경향성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유아의 표상 연구를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 선정에 있어서 서울 및 신도시에서 임의로 선정한 두 기관만으로 제한되었고, 연구 참여에 자원하는 어머니와 유아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유아의 이야기 완성과제에서 나타난 표상의 특징 및 경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폭넓은 연구 대상을 선정하여 일반 유아뿐만 아니라 특수한 요구를 가진 임상집단이나 한 부모 가족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유아의 표상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참고해 볼 때 앞으로 MSSB를 이용하여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표상을 연구할 때에는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연구하고, 또한 유아의 연령에 따라 5세 미만과 5세 이후는 구분되어 사용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연희(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문정(2003).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의진·이경숙·이혜란(1999). 학령전기 아동의 심적 표상 : 부모에 대한 심적 표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10, 21-33.
- 유영미·이 영(2001).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표상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4(1), 63-74.
- 이경숙·정석진·신의진(2003). 학령전기 학대유아와 일반유아의 이야기 표상 차이 : 양육자, 자기, 표상구조.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6(2), 71-86.
- 이 영·조연순(1991). *아동의 세계 : 태내기에서 청년기 발달까지*. 서울 : 양서원.
- Berk, L. E.(2003). *Child Development(6th ed.)*. Boston : Allyn & Bacon.
- Bretherton, I.(1999). Undating the 'internal working model' construct : Some reflections.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3), 343-357.
- Bretherton, I., & Munholland, K. A.(1999). Internal working model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 A construct revisited.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89-111). New York :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 Oppenheim, D.(2003). The MacArthur story stem battery :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liability, validity, and reflections about meaning. In R. N. Emde., D. P. Wolf., & D. Oppenheim. (Eds.), *Revealing the inner worlds of young children*(pp. 55-80). New York,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Bretherton, I., Prentiss, C., & Ridgeway, D.(1990). Family relationships as represented in a story-completion task at thirty-seven and fifty-four months of age. In I. Bretherton & M. W. Watson (Eds.), *Children's perspectives on the family*(pp. 85-106). San Francisco : Jossey-Bas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273-309).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etherton, I., Oppenheim, D., Buchsbaum, H., Emde, R. N., & MacArthur Narrative Group(1990). *MacArthur story-stem battery*. Unpublished manual.
- Cicchetti, D., Cummings, E. M., Greenberg, M., & Marvin, R.(1990).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on attachment beyond infancy.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pp. 3-50).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Freniere, P. J.(2000). *Emotional development : A biosocial perspective*. CA : Wadsworth press.
- Lyons-Ruth, K.(1996). Attachment relationships among children with aggressive behavior problems : The role of disorganized early attachment patter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 64(1), 64-73.
- Main, M., Kaplan, N., & Cassidy, J.(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in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 66-104).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1-2, Serial No. 209).
- Oppenheim, D.(2003). Children's emotional resolution of MSSB narratives : Relations with child behavior problems and parental psychological distress. In R. N. Emde., D. P. Wolf., & D. Oppenheim.(Eds.), *Revealing the inner worlds of young children*. (pp. 147-162). New York,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Oppenheim, D., Emde, R. N., & Warren, S. L.(1997a). Children's narrative representations of mothers : Their development and associations with child and mother adaptation. *Child Development*, 68, 127-138.
- Oppenheim, D., Emde, R. N., Hasson, M., & Warren, S.(1997). Preschoolers face moral dilemmas : A longitudinal study of acknowledging and resolving internal conflict. *Inter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8, 943-957.
- Oppenheim, D., Nir, A., Warren, S., & Emde, R. N. (1997b). Emotion regulation in mother-child narrative co-construction : Associations with children's narratives and adapt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284-294.
- Page, T., & Bretherton, I.(2001). Mother-and father-child attachment themes as represented in the story completions of preschoolers in postdivorce families : Linkages with teacher rating of social competence.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3, 1-29.
- Solomon, J., & George, C.(1999). The measurement of attachment security in infancy and childhood.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pp. 287-316). New York, NY : Guilford Press.
- Steele, M., Steele, H., Woolgar, M., Yabsley, S., Fonagy, P., Johnson, D., & Croft, C.(2003). An attachment perspective on children's emotion narratives : Links across generations. In R. N. Emde., D. P. Wolf., & D. Oppenheim. (Eds.), *Revealing the inner worlds of young children*. New York, NY : Oxford University Press.
- Thompson, R. A.(1999). Early attachment and later development. In J. Cassidy & P. R. Shaver(Eds.), *Handbook of attachment :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pp. 265-286). New York : Guilford Press.
- Toth, S. L., Cicchetti, D., Macfie, J., & Emde, R. N. (1997). Re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 in narratives of neglected, physically abused, and sexually abused preschooler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781-796.
- Verschueren, K., & Marcoen, A.(1999). Representations of self and socioemotional competence in kindergartners : Differential and combined effects of attachment to mother and to father, *Child Development*, 70(1), 183-201.
- Verschueren, K., Marcoen, A., & Schoefs, V.(1996). The internal working model of self, attachment, and competence in five-year-olds. *Child Development*, 67, 2493-2511.
- Warren, S. L., Oppenheim, D., & Emde, R. N.(1996). Can emotions and themes in children's play predict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1017-1023.
- Warren, S. L., Emde, R. N., & Sroufe, L. A.(2000). Internal representations : Predicting anxiety from children's play narrativ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1), 100-107.

Waters, H. S., Rodrigues, L. M., & Ridgeway, D. (1998). Cognitive underpinnings of narrative attachment assessment.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71*, 211-234.

Zahn-Waxler, C., Schmitz, S., Fulker, D., Robinson, J., & Emde, R.(1996). Behavior problems in 5-year-old monozygotic and dizygotic twins :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patterns of regulation, and internalization of contr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8*, 103-122.

Zimmermann, P.(1999). Structure and functions of in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their role for emotion regulation.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1*(3), 291-306.

2004년 8월 31일 투고 : 2004년 10월 20일 채택